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9월 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4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제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 이 요셉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시흥성전에서 청년봉사선교회 임원으로 청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일에 방 송실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각 성전에서 오늘 많은 청년들이 즐겁게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 봉사하고, 또 믿음의 정병답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앞장서 헌신하는 모습에서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신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매주 성도님들의 간증문을 읽으며 은혜를 받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간증문을 쓰기로 작정하고 길지 않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정리해보니, 연약함과 어리숙함으로 점철된 삶이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더 크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의 외증조할머니는 무당이셨고, 외할아버지는 소위 철학관을 운영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학관이 지역에서 꽤 유명하여 부적을 받으러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손님으로 온 친할아버지의 권유로 저의 부모님이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시 아버지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아버지의 강한 성격과 친가 가족의 핍박으로 인해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군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병명조차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저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며 괴롭혔습니다. 제 나름대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며 잘 대해주었는데, 친구들은 저의 그런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저를 업신여기므로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지만 저는 교회학교에서 배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을 생각하며 인내하였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좋아했던 친구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정서가 생겼습니다. 열등감까지 생겨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저의 부족하고 약한 면을 드러낼까 봐 말과 행동을 무척 조심하게 되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스스로는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대인관계와 진로 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변에 친한 친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친구들의 코를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까지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당시로서는 일종의 도피처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부와 선임병들에게 신임을 받으며 순탄하게 군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 사고를 저지른 병사들이 제가 있는 부대로 전출을 오고 저와 동기가 되면서, 저의 군 생활이 급변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온몸에 새겨져 있던 문신의 글씨와 그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생 시절의 일부 친구들처럼 그들 또한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학교는 하교 후에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맡은 임무 외에 추가로 상담병 역할까지 저에게 맡겨져 갖가지 문제가 있는 병사를 전부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즈음 어머니의 병세까지 악화되어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부대 안에 저만의 기도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실로 활용하던 막사내 독서실이 부대 사무실 개편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변기가 있는 칸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모를 병사의 자해나 자살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변기 칸에서는 10분 이상을 머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손목시계로 알람을 맞춰놓고 9분마다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군 복무를 마친 후 저의 영적인 상태는 메마른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한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고 또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받다보니 학업이 마치 고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에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이불을 움켜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신 이유, 내가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군 생활을 한 이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큼 나의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 등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의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학교 기도실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실에서 한동안 소리 내어 기도하다가 조용히 묵상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 받으시는 장면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12,13)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15)

그와 함께 제가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저를 굳게 붙들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 주님의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거짓말처럼 공황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들 앞에서 저의 부족하거나 또는 연약한 무엇을 느끼게 되면 이내 가슴이 두근거리던 신체화 증상 또한 치료되었습니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사라지고 대신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린도후서 1:4)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청년봉사선교회 회장의 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청년들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는 일이 더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저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어머니를 핍박하였던 친가의 가족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과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며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베드로전서 1:6~9) 아멘.

#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12과) 시험 받으신 예수님

- 본문 : 마태복음 4:1-11
- 요절 :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 찬송 : 395장(새찬송가 342장), 397장(새찬송가 357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공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사십 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시험들을 다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다가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하신 후인지라 몹시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러한 형편을 이용하여 가장 가능성이 있음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기적을 베풀고, 동시에 그 떡으로 시장기도 면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러한 요청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되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신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모든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행하여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시장한 군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8).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여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2.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며 또 다시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 91:11,12)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인 배고픔을 약점으로 삼아 다가왔던 마귀는, 이번에는 인간의 명예욕에 대한 욕구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찬사를 보낼 것이며,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신 6:16)는 말씀으로 이번에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전 10:9)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자랑이나 욕심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3.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

마귀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 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마 4:9)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두 번씩이나 실패한 마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번 시험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꾀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영광과 권세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에게는 경배할 수 없음을 단호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신 6:13)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니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패하여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연합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와 같이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로써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마귀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인산 : 인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옥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